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통권 제 163호

2561
2017
05

계율이야기
비구니의 17가지 승잔죄

마음의 등불
물에 비친 달

지혜의 뜨락
부처님께 마른나무를 보시한 공덕

불교총지종

종조법설집
제3장 잠언편 p.184

완전한 부처님에 귀의

인간은 불완전하다.

복도 불완전하고 지혜도 불완전하다.

지혜도 불완전하나

부처님만은 완전한 까닭으로 사람이 귀의 하느니라.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종 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므로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목차

불교이야기 _ 04
지혜와 자비의 빛을 내리신 석가모니 부처님
_ 화령

살다보면 _ 22
파사현정破邪顯正
_ 이옥경

법 향기 속으로 _ 50
부모 섬김
_ 법수연

2561
2017
05

04 **불교이야기** 지혜와 자비의 빛을 내리신 석가모니 부처님 _ 화령
10 **마중물** 청년 마가의 물음에 답하다 _ 보경
12 **계율이야기** '비구니의 17가지 승잔죄' _ 법경
18 **부처님오신날 특집** 등燈불을 밝히는 종교적 의미와 공덕 _ 법륜
22 **살다보면** 파사현정破邪顯正 _ 이옥경
28 **향유** 염화미소拈華微笑 _ 김홍균
30 **십선성취** 동전같은 너 _ 보현
34 **마음의 등불** 물에 비친 달 _ 안정복
37 **산책** 봄을 듣다 _ 김대곤
38 **씨앗 한알** 어제와 오늘이 똑같지만 어제는 오늘이 아니다 _ 혜거
40 **좋은차, 아름다운 사람** 전통음료 _ 유영신
42 **울림** 그대로 멈춰라 _ 김정호
44 **발길 머무는 그곳에** 대금산 진달래를 찾아서 _ 강경중
50 **법향기 속으로** 부모 섬김 _ 법수연
54 **디딤돌** 봄날은 간다, 가 _ 지현
58 **거꾸로 보기** 종로서적 _ 윤준호
62 **지혜의 뜨락** 부처님께 마른 나무를 보시한 공덕 _ 덕현
66 **걸망에 담긴 이야기** 좋은사람, 나쁜사람 _ 법일
68 **SNS 세상 돌아보기** 대한민국의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_ 유일한
70 **독자기고** 내 두 번째 이름 _ 경문지
74 **행복한 기지개** 따뜻한 봄철, 알레르기 질환으로 힘든 사람들 _ 최길순
78 **뜻 바루기**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급수공덕給水功德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온 누리를 감싸고
중생들은 저마다의 삶을 누리며
온갖 식물은 생기가 돌아
녹음 방초 제 빛을 뽐내며
계절 또한 춥지도 덥지도 않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오늘
저희들은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합니다.

부처님의 탄신은 인류의 홍복이요
뭇 중생들의 감로천이옵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탐진치가 치성하여
인간의 가치가 날로 허물어져 가는 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진정 우리 인류를 구제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최상의 보배입니다.

이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은
온 세계로 펼쳐져서
지구상의 모든 눈뜬 이들과
불법인연 있는 모든 이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사옵니다.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시며
삼계의 모든 중생을 건져주시는
거룩한 부처님!
대자대비 석가모니 부처님!
한량없는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오며
부처님의 가피로
온 세상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 화령 합장

불교이야기

지혜와 자비의 빛을 내리신 석가모니 부처님

화령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 주교

'부처님 오신날'은 불교를 개창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신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부터 음력 4월 8일을 국정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석가탄신일로 불리었는데 지금은 '부처님 오신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력 5월 3일이 부처님 오신날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불기 2561년이 되는데 불기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해, 즉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80년을 사셨으니까 이보다 80년 전인 2641년 태어나신 것입니다.

스리랑카나 미얀마, 태국 등의 남방권의 불교에서는 베사카 달의 제8일 혹은 제15일을 부처님의 탄생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베사카 달은 대략 양력 5월에 해당되며, 그 달 가운데의 8일이나 15일에 베사카 제를 지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계의 종교로 발돋움한 불교, 그 교조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것은 그 분의 가르침을 더욱 잘 배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불교에 대해 모르시는 분도 교양으로 생각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게 되면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래의 이름은 고타마 싯다르타Gautama Siddh rtha였습니다. 후에 출가하여 깨달음을 열고 '붓다'로 일컬어졌고 '석가족의 성자'라는 의미에서 '석가모니釋迦牟尼'라고 일컬어졌던 것입니다. 인도 말로는 '샤카무니kyamuni'라고 하는데 석가는 석가족을 가리키는 샤카의 음사이고 모니는 성자를 의미하는 무니의 음사입니다. 따라서 샤카무니는 샤카족 출신의 위대한 성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석존釋尊'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석가족의 성인으로서 세상에 으뜸가는 분이라는 뜻의 '석가모니 세존'을 줄인 말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원래의 성인 '고타마'는 '가장 훌륭한 소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소를 신성시하던 당시의 일반적인 이름으로서 석가족의 별칭으로 추측됩니다. '싯다르타'는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 혹은 '일체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친은 석가족 출신으로 카필라바스투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부친의 이름은 슛도다나라고 했으며, 모친은 이웃 코리족 출신의 마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불전에 의하면 마야 부인은 오래도록 아이가 없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6개의 상아를 가진 흰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해서 태안에 드는 꿈을 꾸고서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위해 친정에 가던 중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을 출산했다고 경전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는 현재의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 서쪽 200㎞ 지점에 있는 카필라바스투 근교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를 정확하게 몰랐는데, 1896년 아쇼카왕의 석주石柱와 연못 등이 발굴되면서 비로소 석존의 탄생지로서 확인되었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친정으로 가던 마야부인이 갑자기 산기를 느껴서 이 룸비니 동산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곳은 동산이라기보다 꽃이 만발한 화원에 가까웠는데 그곳에 있는 무우수無憂樹라는 나무에는 꽃이 가득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래에 누워 잠시 휴식을 취하던 마야부인이 아름답게 핀 무우수 나무에 오른손을 뻗는 순간 태자가 오른쪽 옆구리에서 탄생하셨다고 합니다. 무우수는 아쇼카나무라고도 하는데 흰 색깔의 꽃이 핀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이름들은 뒷날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에 꽃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신 싯다르타 태자는 이후 7일만에 생모를 잃고 이모의 손에서 양육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생노병사의 괴로움을 목격하시고 출가에 뜻을 두고는 왕궁을 떠나 숱한 고행과 정진을 거치면서 마침내 인생과 우주의 비밀을 깨치시고 붓다, 즉, 깨친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후 45년에 걸쳐 인도 북중부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행복의 길을 알려주기 위하여 많은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설법들은 처음 몇 백년 동안은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문자로 정착되어 경전이 되었습니다.

25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불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이제는 발상지인 인도나 아시아 여러 나라보다도 서양인들이 불교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인들은 기독교라는 좁은 테두리에서 종교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다가 불교라는 신선한 사상을 접하고서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을 섬기지 않는 불교가 종교가 맞는가 하는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교야 말로 너무나 합리적이고 미신이나 맹신을 배격하고 지혜를 강조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접하고는 여기에 매료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과학이 발달할

수록 과학과 더 멀어지는데 불교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과학과 합치해 갔습니다. 불교의 연기법은 과학시대에 딱 맞는 종교였던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천년 전이나 만년 후나 변함이 없어야 하며 동양에서도 맞는 것이면 서양에서도 맞는 것이어야 하듯이 보편성과 영원성이 있는 것이 진리인데 불교가 바로 그런 종교였습니다. 더구나 불교는 형이상학적인 공허한 관념론이 아니라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여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생활철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가 세계인의 정신세계를 이끌 새로운 종교로 서양인들에게 부각된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불교는 교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다른 종교들처럼 이교도라고 하여 핍박하고 심지어는 살상까지 저지르는 그러한 역사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 평화를 열망하는 세계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의 이러한 관용과 자비의 정신은 오늘날의 종교 갈등으로 인한 테러나 살상 등을 볼 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혜로써 통찰하고 내가 바뀜으로서 세상이 변한다는 단순하고도 현명한 진리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무 것도 지닌 것 없이 오직 중생들의 괴로움을 건져주시려고 이 세상에 나투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큰 은혜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두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중물

청년 마가의 물음에 답하다

보경
송광사 분원 법련사 주지
조계종 교육원 교육국장 역임

자비가 온 누리에 넘쳐흐르게 하라

마가 | 공덕이 되고 복밭을 얻기 위하여 공양을 올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줄 때
어떻게 하면 완전한 공양이 되겠습니까?

스승 | 탐욕을 버려라. 사악한 마음을 제어하라.
또한 한없는 자비심을 일으켜라.
밤낮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무한한 자비의 마음이 온 누리에 넘쳐흐르게 하라.

마가 | 누가 순수한 사람입니까?
누가 해탈하고 누가 얽매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인간은 스스로
범천계梵天界에 이를 수 있습니까?

스승 | 마가여,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리라.
도움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와 같이 바른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반드시 범천계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마가라는 젊은이가 복을 짓는 방법을 여쭙고, 이에 대해 부처님이 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탐욕과 미움을 버리고 한없는 자비심을 일으켜 그 자비심이 넘쳐흐르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 짓는 방법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호주의 한 간병인이 암에 걸려 죽음에 이른 남자들이 후회하는 다섯 가지 공통점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고 공감이 갔습니다.

첫째,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걸
둘째, 일을 좀 덜할 걸
셋째, 화 좀 덜 낼 걸
넷째, 친구들을 더 챙길 걸
다섯째, 도전하며 살 걸 등의 순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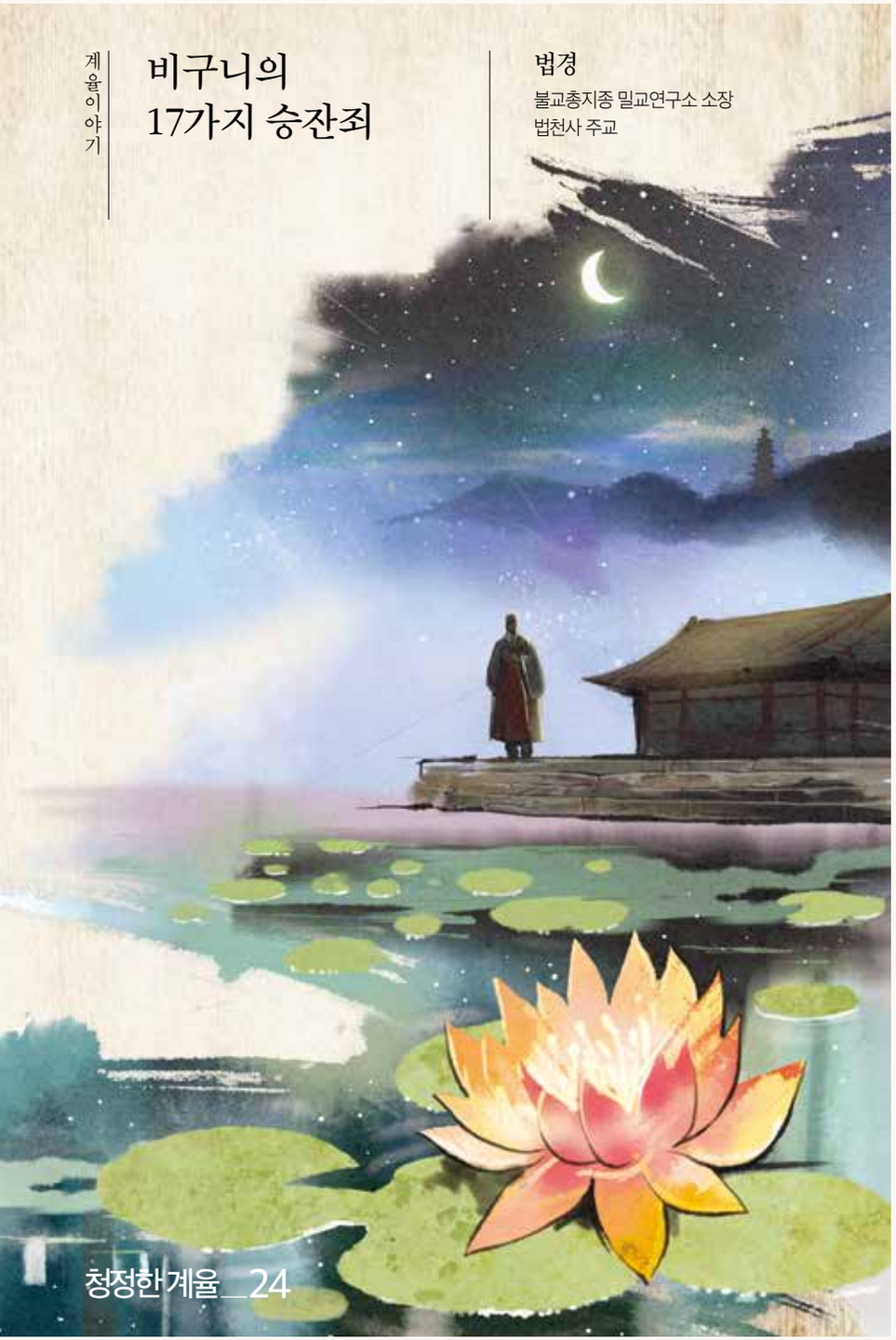
자신에게 맞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분명 더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시간을 더 많이 내고 베풀 수 있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만물에는 각자의 성질이 있어서 그 성질을 잘 살펴서 살아가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또한 부처님 말씀처럼 올바른 공양을 올리면 기필코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中에서

계율이야기

비구니의 17가지 승잔죄

법경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법천사 주교



청정한계율_24

비구니의 17가지 승잔죄

불가佛家에서 가장 큰 죄가 바라이죄다. 이를 중죄重罪라 하며, 그 네 가지를 사중죄四重罪라 한다. 사중죄는 비구나 비구니 모두에게 적용되는 계율이다. 그래서 이를 공계共戒라 한다. 네 가지의 바라이는 살생 투도 사음 망어이다. 이 바라이를 범하면 승가에서 추방된다. 이를 불공주不共住라 한다. 함께 머물수 없다는 뜻이다.

바라이 다음의 죄가 승잔죄다. 추방이 아니라 승가에 다시 남을 수 있는 죄다. 승잔죄는 비구와 비구니의 경우, 그 수와 내용이 다르다. 비구는 13가지가 있고 비구니는 수가 더 많다. 17가지나 된다.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른 내용이 적용된다. 비구니에 적용되는 17가지의 승잔죄는 다음과 같다.

01. 혼인을 중매하지 말라
02. 근거없이 남이 중한 죄를 범했다고 모함하지 말라
03. 한 쪽의 얘기만 듣고 중한 죄를 범했다고 비방하지 말라
04.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
05. 도둑인줄 알면서 계를 주거나 가르치지 말라
06. 죄가 드러난 자를 정실情實에 따라 사면赦免하지 말라
07. 홀로 물을 건너거나 마을에 들어가거나 잠을 자거나 따로 떨어져 다니지 말라
08. 염심染心을 품은 남자가 주는 옷과 밥을 염심染心으로 받지 말라

09. 염심染心을 품은 남자의 음식과 보시물을 받으라고
다른 비구니에게 권하지 말라
10.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지 말라
11. 파벌을 조성하여 화합을 깨뜨리는 자를 방조하지 말라
12. 재가자의 신심을 떨어뜨리지 말고, 퇴거의 충고를
거역하지 말라
13. 나쁜 마음으로 대중의 규칙을 어기고 충고를 거역하지 말라
14. 나쁜 비구니와 친히 어울려 서로 허물을 숨기지 말라
15. 함께 살면서 서로 서로 죄를 덮어주라고 가르치지 말라
16. 진심瞋心을 내어 삼보를 버리고 개종改宗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17. 다투기를 좋아하여 감정을 품고 있지 말라

이상이 비구니의 17가지 승잔죄이다. 이 승잔죄를 범하면 승가로부터 따로 떨어져 혼자 지내야 한다. 이를 별주別住라 한다. 이 별주는 참회를 통해서 면할 수 있다. 다시 승가에 남게 된다. 여기에는 반드시 갈마磨磨라는 절차가 전제된다. 갈마는 일종의 회의로서 참회의 진위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갈마라는 절차를 통해 참회가 인정되면 승잔죄는 면하게 된다. 사면赦免이 되는 셈이다.

비구니의 17가지 승잔죄 중 제1조의 매가계媒嫁戒

비구니의 승잔죄 1조는 비구의 승잔죄 제5조와 동일하다. '중매를 하지 말라'는 계이다. 이를 매가계媒嫁戒 또는 매인계媒人戒라 한다. 이 계가 제정된 배경은 출가수행자가 중매를 했는데, 결혼 생활이 파탄을 맞게 되어 중매를 한 비구에게 비난이 쏟아진 데서 비롯된 것이다.

출가수행자가 중매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세간의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석존은 중매를 금하도록 했다. 출가수행자 한 사람이 비난받을 일을 저지르면 승가 전체가 비난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대중의 보시와 신심이 끊어질 수 있으므로, 석존께서 이를 금하는 계율을 제정하신 것이다.

율장에 등장하는 계율은 승가 내의 생활 뿐만 아니라 특히 신도들과의 관계를 중시한 내용들이 꽤나 많다. 예를 들어 탁발을 나갔을 때 신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은 절대 삼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그예다. 바루와 의복을 청결히 하는 것은 물론이오, 몸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며 행동과 말에 있어서도 막행과 막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아무 곳에서 용변을 봐서도 안되고, 여자들에게 음담패설이나 성희롱, 농담도 삼가하라고 하셨다. 한마디로 수행자의 위의威儀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위의를 갖추지 않는 것은 출가수행자의 바른 행이 아니라고 석존께서 지적하셨다.

비구니의 승잔죄 제1조의 인연담

중매를 하지 말라는 매가계媒嫁戒의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사분율』의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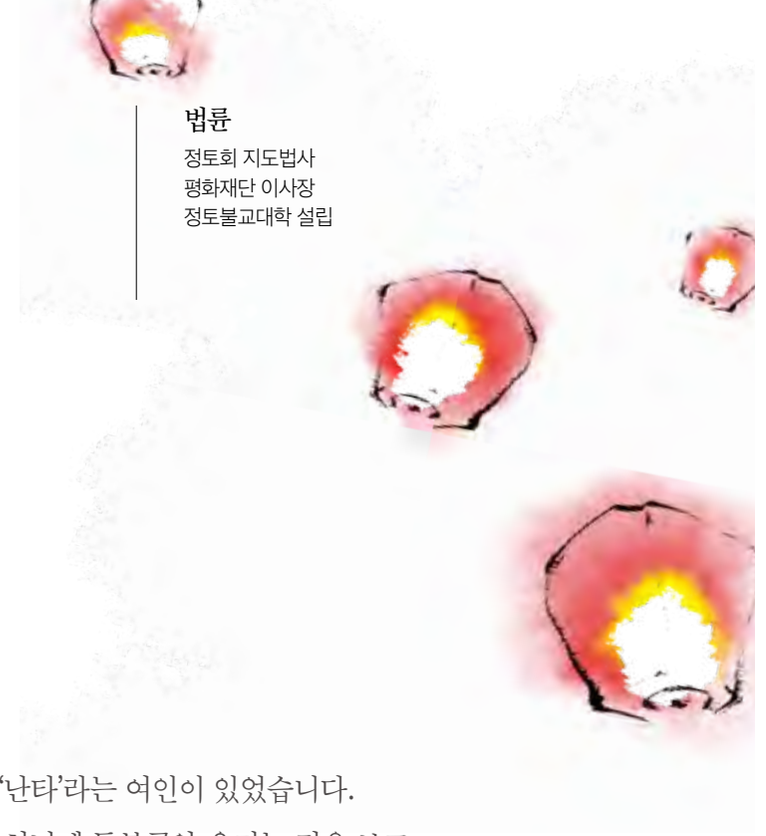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기사굴 산중에 계실 때 왕사성의 가라伽羅라는 비구가 살고 있었다. 그는 원래 나라의 대신大臣 출신이었기에 세속법을 잘 알아 수많은 청춘 남녀들을 서로 짝을 지어 주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 후 잘 살아 "우리는 가라 사문 스님의 덕분에 이렇게 잘 산다"하고 칭찬을 하였지만, 반대로 못사는 사람은 "가라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하며 원망하고 비난하였다.
시중에서는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들이 스님에게 와서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대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스님이 "결혼하면 안된다"고 하니 오히려 반발심과 함께 서운한 마음이 일어나 승가를 믿는 마음이 없어지고, 신信과 불신不信, 경敬과 불경不敬이 엇갈리는 광경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전해듣고 가라 비구를 불러 확인하신 뒤에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셨다.
"만약 비구가 여기 저기 왕래하면서 중매하며 남자의 뜻을 여자에게 말하고, 여자의 뜻을 남자에게 말하여 혼사婚事를 이루게 하거나 사사로이 통하게 하면 이는 잠깐 사이라 할지라도 승잔죄가 되느니라."

출가자의 중매는 계를 어기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중매에 열중하는 것보다 신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상담해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율장에서도 '가정불화로 헤어진 부부를 다시 결합토록 노력하는 것, 병을 앓는 아버지의 편지를 수감 중에 있는 딸에게 대신 전달해주는 것, 병든 비구의 편지를 신도에게 전달하는 것' 등의 심부름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족의 화합, 가정의 안녕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승잔죄가 아니지만, 출가수행자가 중매를 위해 이리 저리 왕래하는 것은 승잔죄가 된다.

다음호에서는 비구니에게 적용되는 승잔죄 제2조, 3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등燈불을 밝히게 된 유래와 공덕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
평화재단 이사장
정토불교대학 설립



부처님 당시 인도에 '난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날 국왕이 부처님께 등불공양 올리는 것을 보고
"나는 전생에 무슨 업보로 복 밭을 만나고도 뿌릴 종자가 없는 것일까?"하다가 거리를 다니며 동양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자, 머리채를 잘라 기름을 산 뒤 등불을 하나 만들어 기원정사 한쪽 구석에 등불을 밝힌 다음 간절한 서원을 하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난하여 작은 등불 하나만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옵나이다.
그러나 저로서는 몸과 마음 모두를 바치는 것이옵니다.
바라건대 이 인연공덕으로 저에게도 지혜광명을 내려주시고,
일체중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사라지게 하여 지이다.

이와 같이 소원을 빌고 부처님 전에 예배를 한 뒤 떠났습니다.
밤이 지나고 이른 새벽이 되어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다른 등불은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하는데 가난한 여인 난타가 밝힌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날 당번은 목련존자였습니다.
목련은 부처님의 열분 제자 가운데서 가장 신통력이 뛰어난 위대한 현자였습니다. 목련존자는 등불을 끄기 시작 하였습니다.
낮에 등불을 켜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다시 켜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나 둘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등불만은 끌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새롭게 타면서 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끌려고 하는 등불은 너의 힘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다.
비록 네가 신통력이 자재하여 바닷물을 길어다 붇거나, 태풍을 일으켜 끈다 해도 꺼지지 않는 세상을 밝히는 불멸의 등불이 될 것이다.
왜 그런지 알겠느냐?
그 등불을 보시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과 마음을 모두 바쳐 일체중생을 구원하겠다는 큰 발원을 세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
말씀을 마치고 나신 부처님은 난타 여인을 불러 수기하시길
"너는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될 것이다. 그 때의 이름은 수미등광여래이며 십호의 공덕을 갖추게 될 것 이니라."
이때 난타 여인은 수기를 받고 기쁜 나머지 부처님 앞에 꿇어앉자 출가하기를 발원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쾌히 승낙 하시고 그에게 비구니가 되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후 난타 여인은 일체의 고뇌를 여의고 성불의 법열에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전에 등불을 공양하는 유래가 되었고, 부처님께서 예언하신대로 가난한 여인 난타가 밝힌 등불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늘지고 어두운 세상 곳곳을 찬란히 밝히고 있습니다.

불설에 전하기를
"그 때 등불을 밝힌 가난한 여인 난타는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 세상에 황후로 태어나, 남편 아쇼카 왕과 더불어 인도를 천하통일 시키고 불교를 중흥시키는데 참으로 장한 보살이었습니다."

그는 또 16명의 왕자와 공주를 생산하여 자손 모두를 출가시켜 부처님법이 미치지 않는 국가마다 포교사로 파견하여 오늘날 태국을 비롯한 남방불교를 중흥시켰으니 이는 바로 불보살의 화현을 보는 듯합니다.

살다보면

파사현정破邪顯正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중국 내 롯데마트 99곳 중 67곳에 대한 영업을 정지한 금매령禁賣令, 한류韓流를 규제하는 한한령限韓令이나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금유령禁遊令, 한국 모바일 게임의 수입을 금지하는 금희령禁戲令, 화장품 수입을 불허하는 금수령禁輸令, 한국산 식품의 통관을 불허하는 폐관령閉關令, 복수 비자를 취소하는 금첨령禁簽令, 한국의 전세기 운항을 전면 봉쇄하는 금비령禁飛令,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사용을 제한하는 한전령限電令 등 각종 준법 보복은 물론, 공산당 선전기관들은 단교斷交에 준하는 제재를 내세우면서 한국 기업들을 벌해서 교훈을 주자며 불매운동을 선동하고 있다.

연예·관광·경제·문화·스포츠 분야로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부 간의 각종 협력 프로그램도 일방적으로 속속 취소되고 있다니,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보복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사드를 설치·운용하는 주체인 미국에는 끽 소리 한 번 못하면서 우리나라에만 온갖 보복 조치를 하는 졸렬함에는 갑질이라는 말조차도 아깝다. 더 딱한 건 자타여타 을의 처지에 몰렸으면서도 똑 부러지는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처사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과 무기력한 대응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화를 자초했다.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중국의 처사에 왈가왈부할 때는 이미 지났다. 강력한 항의와 함께 현실적인 대응책을 촉구하는 일, 그것이 갑과 을의 논란을 떠나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비극적인 역사와 마주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 만에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 봐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갑'중에서도 슈퍼 갑인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을 도와 이권 및 특혜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을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을 남용하고,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실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르기까지, '갑' 못지않은 힘을 지닌 '을'들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살다 보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건물주는 갑이고 세입자는 을이란다. 대기업이나 월급을 주는 사장은 갑이고 하청업체나 근로자는 을이란다. 잘난 사람, 힘 센 사람, 가진 사람은 갑이고 못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은 을이란다.

그런데 요즘 '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 선거가 끝나면 대개는 '갑'이 될 '을'들이 높은 곳에서 잠시 내려온 것이다. 그늘진 곳을 찾아 거친 손을 마주잡고 특권을 내려놓겠다, 재벌 개혁을 하겠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존경하는'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들의 화려한 말잔치에 어지럼증이 날 지경이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말 어려운 게 사람을 찾는 일인 것 같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대통령 선거만 놓고 봐도 그렇다. 선거 벽보나 공보, 공약서, 신문과 방송을 통한 대담 · 토론회 등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열려 있지만 후보자들의 인성이나 도덕성, 정치철학 등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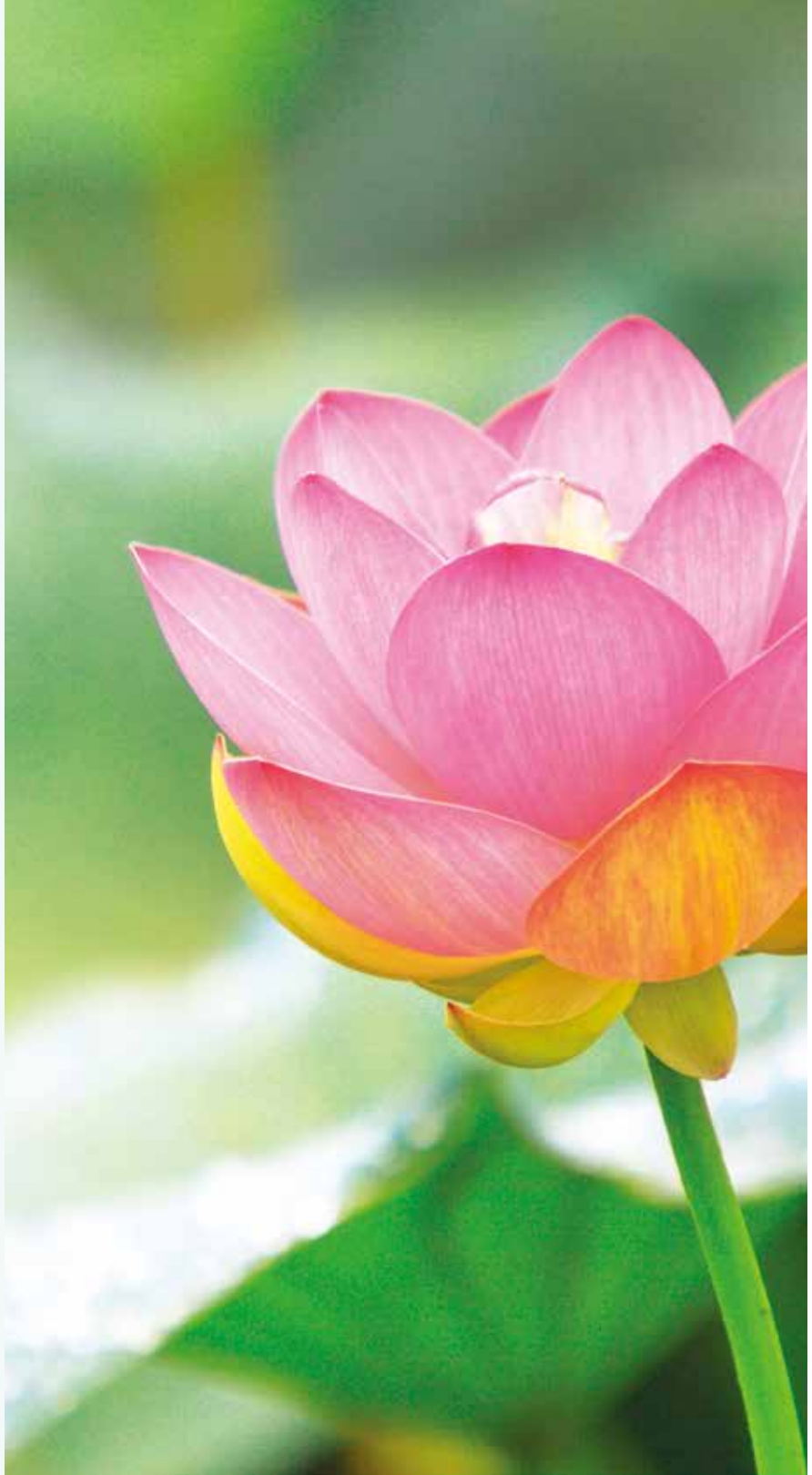
장미대선을 치러야 하는 대한민국의 불행은 선거를 일러 '가장 올바른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것이고, 가장 나쁜 사람을 뽑지 않는 것'이라며 뒷짐 지고 한 발 물러나 있던 '을(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면면을 검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일이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유권자의 의무인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을 잊었던 결과다.

파사현정破邪顯正, 부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따른다는 뜻이다. 사악한 것을 깨닫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바꾼다는 이 말은 곧 그릇된 마음을 깨뜨려 없애면 바르게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파사현정의 각오라면 어지러운 작금의 사태를 떨치고 일어서는 일쯤이야….

'을'이 된 지 오래지만 따지고 보면 4,200만이 넘는 유권자를 가진 우리가 진짜 '갑'이다. 손마다 한 장의 투표권이 있지 않은가.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것도 '을'로 살아온 '갑'의 힘이었다.

이제는 그 힘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대립을 끝내야 한다. 국론 분열을 봉합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변화의 중심에 약 51,712,221명(행정자치부 2017년 2월)의 울트라 슈퍼 갑,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

2017년 5월 9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우리 울트라 슈퍼 갑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당신, '국민이 대통령'임을 아는 그대를 소망한다.



향유

염화미소拈華微笑

김홍균
불교총지종 총지사 교도
개포초 교장 역임

염화미소 拈華微笑

'염화시중拈華示衆의 미소微笑'의 줄인 말이다.
석가가 영산법회에서 연꽃 한 송이를 대중에게 보이자,
가섭迦葉, 카시아파만이 그 뜻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 하여
석가가 그에게 불교의 진리를 전했다는데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의 의미를 말한다.

동전같은 너

보현
실보사 전수

결혼 전엔 한시도 떨어지기 싫었고, 헤어지면 조금이라도 빨리 다시 만나길 바라며 헐레벌떡 약속장소로 달려갔던 우리였죠. 주변에서 뭣이 그리 좋으냐고 물으면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사랑 가득 담아 "전부다~"를 외쳤는데, 세월 지나 살아보고 나니 싫어졌다고 해요. 뭣이 그리 싫으냐고 물어보면 누구하나 잡아먹을 기세로 "전!부!다!"를 외칩니다.

처음과 달라졌다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과연 누가 바뀌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별반 달라진 게 없는 상대방인거 같은데 말이죠. 착해서 좋았는데 그 착함이 '오지랖이 넓다', '남들 일에는 물불을 안 가린다'라고도 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 좋았는데 '게으르다', '느려 터졌다'라는 불만으로 표현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간혹 상대에게서 자랑거리가 생기면 재탕에 재탕을 반복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러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도마 위에서 칼이 춤을 춥니다. 본인의 입장만을 가지고 본인에게 좋았다면 좋은 것이고, 불편했다면 불만이라 합니다. 그러니 누가 변덕을 부리고 바뀌었다 해야 할까요?

상대에게서 불편이 느껴질 때는 상대를 떠나 그 순간 본인의 마음 상태에 집중해 봐야 합니다. 상대를 탓 하기 보단 나에게 눈을 돌리는 순간 해결될 수 있는 감정문제는 많습니다.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이 남의 탓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그 감정이란 것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상대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내 속에 일렁이고 있는 감정들이 상대를 넘어 존재하는 내 것이라는 자각만 있어도 상대탓에 열 올릴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오롯이 대면했을 때 제법 편해지기도 합니다. 거기다 상대나 상황은 바꾸기가 어렵지만 내 마음은 그나마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 것이니까요.

학그림이 있는 동전의 한 면만이 오백원이 아닙니다. 500이 적힌 면도 오백원입니다. 양면이 합쳐져야만 "오백원"이라고 우린 부르고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좋게 보이는 그 부분도, 싫게 보이는 그 부분도 모두가 그 사람입니다. 나의 편의에 의해서 한쪽 면만을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지는 않나요?

상대에게서 불끈 불만이 올라온다면 잠시 STOP!

그저 불만스러워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려고 노력해봅시다.
분명 윽박지를 말들이 사라질 것이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조금의 여유를 주고 상대는 상대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기만 해볼까요?

물에 비친 달

안정복(安鼎福)
1712~1791
18세기 실학자

水月無定象 수월무정상
虛影易欺人 허영역기인
不識光明體 부식광명체
靑天轉素輪 청천전소륜

물에 비친 달그림자 정체가 없건마는
빈 그림자에 속기도 쉬운 일이네
청천 하늘에 뜬 밝은 수레바퀴가
밝게 빛나는 본체인 것을

-「물에 비친 달을 읊다水月吟」『순암집順菴集』中에서 -

순암順菴 안정복은 18세기의 대표적 실학자입니다. 그는 스승 성호 이익李瀷의 경세치용經世致用 학풍을 이어받아 역사학 분야에서 실증주의적 연구를 통해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시인은 물에 비친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흔들리며 이지러지는 달은 밝은 하늘에 있는 달의 그림자일 뿐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달이라고 착각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밝게 빛나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가변적인 허상에 속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당唐나라 시인 이태백李太白은 술에 취해 채석강采石江에 비친 달그림자를 움키려다가 빠져 죽었으니, 허상에 속은 것입니다. 그런 그의 죽음을 두고 고래를 타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들 하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또 허위 사실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속는 것이 되는데도 속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상이라는 것이 늘 청천靑天에 뜬 달처럼 밝게 빛나는 것만은 아니어서 있는 그대로 보려 하면 고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재적인 시인의 허망한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들은 이태백의 죽음을 두고 이야기를 꾸며내고, 또 그 꾸며낸 이야기를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믿고 싶어 합니다. 실상을 바로 보는 데서 생기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실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바로 보고자 할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속을 것인가? 아플 것인가?"

이 시는 한평생 "있는 그대로"를 추구했던 순암이 고통스러울지언정 실상을 바로 보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용기 있는 선택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하승현 선임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 · 정리 · 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산책

봄을 듣다

김대곤
시인

씨앗들이
쏟아지는 그날

무엇하고 있었을까?

한날 한시에
이처럼 고운향기 피어나는데

봄이 쏟아지는 그날은

아마 땅들도 가슴을
한껏 열어 젖히고
비무장 이었을텐데...

어린 꽃다지 하나

담장 아래 돌 틈에
내려 앉은 사연

바람으로 파르르
그날을 들려준다.

한 웅큼의 5월은
이 가슴에도 물들기 시작했다.

씨앗한알

어제와 오늘이 똑같지만 어제는 오늘이 아니다

혜거
조계종 스님
<금강선원>에서 불교 진리를 지도

하루 24시간, 모든 시간이 똑같은 시간인데 어느 한순간 똑같은 시간이 없습니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날이지만 오늘은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와 올해가 같은 해이지만 올해는 또 다른 해입니다. 이것을 '수레바퀴 윤輪'자와 '돌 회廻'자를 써서 윤회輪廻라고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 윤회를 말한다고 해서 윤회가 있고, 윤회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윤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윤회를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그저 그것에 윤회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윤회를 말한다고 해서 윤회가 있는 것처럼 알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는 누가 말해서 있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해도 있고, 말을 하지 않아도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윤회에도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분명하게 해놓은 것이 십이연기十二緣起입니다. 윤회는 이 십이연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냥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도 모두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만 해도 약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라는 엄청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정해진 공간과 시간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그 규칙이 하나만 깨져도 하늘과 땅이 뒤섞여 큰 혼란이 오고 맙니다.

- <가시가 꽃이 되다> 中에서

전통음료

유영신
불교총지종 통리원 교무

우리나라의 전통 음료를 음청류飮淸類라 부른다. 음청류는 술 이외의 음료총칭으로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차茶, 탕湯, 화채花菜, 식혜食醯, 수정과水正果 등이 있다.

01 차

- **결명자차** : 눈을 밝게 하며, 눈병을 다스리는 효력 등이 있다.
- **구기자차** : 면역증진 효과가 있으며, 눈을 밝게 해주고 피로를 빨리 회복해 준다.
- **유자차** : 피부미용, 소염, 해열, 소화기능을 증진해준다.
- **매실차** : 갈증해소, 피로회복, 식중독 예방 등이 있다.

그 밖으로 오미자차, 국화차, 녹차, 생강차 등이 있다.

02 탕

- **제호탕**醍醐湯 : 궁중에서 먹던 한약을 끓여 꿀을 넣고 차게 만든 보양음료이다.
- **온조탕**溫棗湯 : 대추와 생강을 푹 달여 받쳐서 꿀을 가미하여 먹는 탕이다.
- **양위탕**養胃湯 : 인삼을 주재료로 끓인 보양음료이다.

03 화채 오미자화채, 딸기화채, 배화채, 수박화채 등이 있다.

04 식혜 고두밥에 엿기름(맥아)을 넣어 발효시킨 것으로 단술 혹은 감주甘酒라고 한다.

05 수정과 계피와 생강을 달인 물에 설탕, 꿀을 타서 식힌 다음 곶감과 잣 등을 넣어 마신다. 계피와 생강 특유의 매운 향기가 청량감을 준다.

울림

그대로 멈춰라

김정호
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 동요처럼
그대로 멈춰라!

습관적 반응이 나오려고 할 때 그대로 멈춰라.

아토피의 가려움에 긁음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정서가 올라올 때
비난, 비아냥거림, 짜증 등의 반응을 하려고 할 때.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그대로 멈춰라.

우주가 멈춘 것처럼
그대로 멈춰라.

쫓아가려는 마음도 내려놓고
쫓아내려는 마음도 내려놓고
그대로 멈춰라.

그리고 그 순간 몸의 각 부위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가만히 하나하나 자세히 관찰한다.
동시에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서 어떤 감각을 느끼고 있는지 자각한다.

- <마음챙김 명상 멘토링> 中에서

대금산 진달래를 찾아서

강경중
불교총지종 정각사 단월회 회장

거제도로 가는 길

총지산악회 봄맞이 산행은 부산에서 지척의 거리에 있는 거제도 장목면 대금산이다. 우리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 남도의 대금산으로 가기로 했고, 거기서 진달래의 대향연에 참여하여 하루를 누리기로 했다.

거제 장목면은 거가대교가 놓인 후 부산과는 지척의 거리가 되었지만 그러기 이전에는 아주 먼 곳이었다. 버스로 가려면 마산과 충무를 거쳐 거제도 고현에 들어가야 했고 그러고도 버스를 갈아타고 장목면으로 돌고 돌아서 들어가야만 했다. 배를 타고 가려면 바로 가는 배편이 없고, 일단 고현이나 장승포로 가서 역시 버스를 갈아타고 장목면으로 들어가야만 했는데 차편이건 배편이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9시 정각에 20여명을 태운 버스는 정각사를 출발해서 도심을 빠져나갈 때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더니 만덕터널을 지나는데 무려 30여분이 걸렸다. 그런데 도심을 간신히 빠져나와 낙동강 강둑길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시원스럽게 내달려 순식간에 을숙대교에 이르렀고 거기서 다시 녹산산업단지를 가로질러 어느 듯 거가대교에 들어섰다.

거가대교 오른쪽은 부산신항인데 기중기 같은 것이 줄지어서 있고 왼쪽은 김양식장인 듯 보이는 어장이 펼쳐져 있었다. 거가대교를 지나 가덕도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해저터널을 거쳐 거가대교를 건너 거제도 장목면 반깨고개 주차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1시간 30분도 채 안 걸렸기 때문에 지난 날과 비교해볼 때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산비탈을 오르면서

우리 일행은 여느 때처럼 준비체조를 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새봄은 회색빛의 산자락과 언덕 비탈을 초록빛깔로 색칠해가고 있었다. 나뭇가지에는 새눈이 터지고 양지바른 곳에는 이름 모를 뭇 꽃들이 예쁜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오른쪽으로는 높이자란 측백나무 가로수 사이로 계곡이 보였는데 거기에는 회색빛 억새풀의 잔해들이 대단한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산행직전 준비운동

▲ 꽃동산이 바로 저기

좀 더 올라가니 굵은 대나무 군락지가 있었는데 나는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마 오래지 않은 어느 때까지 여기 높은 산언덕에도 분명히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느껴졌다.

대나무 군락지를 지나니 마중 나온 진달래가 수줍은 듯 "왜 이리도 늦게 오느냐"고 나무라는 듯 조곤조곤하고 있는 것 같았다. 월초불공을 마치고 오느라고 늦었다는 것을 제들이 어찌 알리! 곧이어 진달래 축제 행사장의 텐트가 보였다. 우리는 여기까지 온 기념으로 파전안주에 외포 생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서 잠시 땀을 씻었다. 축제는 엊그제 끝났지만 외포어머니회 텐트는 이번 주가 끝날 때까지 남아서 장사를 계속 한다고 했다.

옛날부터 물맛 좋기로 이름난 약수터를 찾아 보았더니 행사장 바로 위에 있었는데 뚜껑을 닫아 놓아 물맛을 볼 수는 없었다. 축제장을 나와 다시 산길을 오르는데 누가 여기에다 누런 카펫트를 깔아놓았다. 대한민국이 참으로 살만한 곳이라고 농담을 하면서 고개마루에 올라섰다. 우선 눈길을 빼앗는 것은 오른쪽 산봉우리를 향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진달래 꽃동산이었다.

아, 저 낭자한 선혈이여!

저만치서 진달래 새악시들이 오라는 듯 환영의 손짓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끌려 진달래 꽃밭으로 들어섰다. 아니, 꽃밭이라기보다는 사람 키보다 더 웃자란 진달래 숲이었다. 붉은 색깔이 묻어나는 것만 같은 흐드러진 봄 물결이 온 몸을 휘감는다.

계절은 춘삼월 봄인데도 어찌하여 진달래꽃은 저토록 처연한 모습으로 피는것인가? 진두강 가람가에서 울던 접동새가 지난밤에는 여기까지 와서 애절하게 울면서 피를 토해놓고 갔더란 말인가?

나는 조금은 슬퍼지면서 소월 시詩 '접동새'를 떠올리고 있는데 동행인들은 진달래 꽃동산이 안겨주는 새봄의 경이감에 취해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에 바빴다.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문득 숙연한 생각이 들었다. 아, 이것은 분명히 민족의 제단에 뿌려진 낭자한 선혈일 게다. 어쩌면 꽃다운 나이에 장렬하게 산화한 순교자의 넋과도 같다. 이것은 꽃이면서 꽃이 아니다. 순교한 선열들의 넋이고 혼이다.

▼ 불타는 저 언덕

진달래가 피어나는 온 산천은 그냥 산천이 아니고 신령님의 거처다. 조국의 산하는 단순한 국토가 아니고 선열들의 몸이고 신령님이며 우리의 귀의처다. 이 산에도 어김없이 호국의 성터가 있고 제단의 흔적이 있다고 한다.

산정에 올라 사방을 조망하다

우리는 능선을 따라 진달래 군락지를 사이에 두고 산정을 향해 올라갔다. 비탈진 산길은 위로 오를수록 더욱 가팔랐다.

▲ 내려다본 외포앞 바다

드디어 정상인 바위봉에 섰다.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다. 숨을 몰아쉬며 사방 바다를 조망했다. 멀리 쪽빛 바다에는 부초처럼 점점이 떠 있는 다도해의 섬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둘러보니, 가덕도 연대봉과 진해만 옥포조선소가 보이고 해안선과 먼 연산들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특히 남해의 파란 바다와 흰 이빨을 드러내고 깔깔 웃는 듯이 보이는 해안선의 하얀 포말은 퍽이나 인상적이었다. 이 산은 해발 438m로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다. 그런데도 이 산의 정상에서면 매우 높은 산으로 느껴지는 것은 주변에 높은 산이 없고 이 봉우리만이 우뚝 솟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봤다. 산 정상에서 각자가 정성껏 준비해온 점심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더 없는 즐거움일 뿐 아니라 소중한 친교의 자리이고 축제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대금산과 진달래 꽃넋을 거기에 두고 하산했다. 버스를 타고 대금산을 돌아 반대편의 외포마을에 가서 저녁을 먹었다. 외포마을은 횟집이 많은 포구였으며 꽤 번화한 마을이었다. 등대횟집에서 '멸치코스 요리'를 먹었는데 푸짐하면서 착한 가격이었다. 여행에서 맛집을 찾아 저녁을 먹는 시간은 여행의 뒤풀이를 겸한 또 하나의 즐거운 시간이었다.

대금산이 신라 때 금이 많이 생산되었는지, 쇠가 많이 생산되었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듯했다. 다만 진달래꽃이 아름다운 산이고, 누구나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산이며, 또 한 번 와보고 싶은 좋은 산임은 분명했다.

진달래 꽃동산 입구에서 ▼

부모 섬김

법수연
화음사 전수

효친 孝親

❶ 어버이에 효순하면 자식도 또한 효순할지니 내가 불효하면 자식이 어찌 효순하겠느냐. 효순은 심덕의 대원이요, 백행의 근본이며, 보리행의 으뜸이 되는 것이니라.

❷ 아버지를 하늘처럼 공경할지며 어머니는 땅과 같이 공경하여라. 너희자손 모범되어 창성해지고 영원하게 가보로서 전해 가리라.

❸ 형상 없는 이불을 믿고 깨닫는데 육체에 병이 없고 부모조상의 영식을 천도하는데 현재 사업과 자손이 잘되며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순하는데 이어가는 미래 자손들의 효순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종조법설집』 제2절 효친(p118)

윤회에 윤회를 거듭하여 내가 부모 태중에 오게 됨은 동업인연이었기에 부모와 자식관계가 된 것입니다. 은혜 깊은 인연이든 빚 갚고 받는 인연이든 이 지중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어 진실한 마음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 효행이겠지요.

내 자신이 부모에게 행한 대로 자식들이 따라 하게 됨은 인과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을 위한 서원불공을 할 때는 자신이 그 시절에 부모에게 자식노릇을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작자수인 엄연한 인과법칙은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음을 이론적으로는 알면서도 자신이 해놓은 것에 대한 과오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식들에 대한 불만족이 불화의 씨앗이 되곤 하지요. 만약 자식들로 인해 힘든 일이 있다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불공 해보면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현재의 상황과 너무도 유사한 지난 과거가 떠오를 겁니다. 이제사 불화의 씨앗을 행복의 씨앗으로 바꿀 기회가 온 거지요. 그러기에 자식에 대한 원망보다는 부모에게 사죄하며 참회를 하게 되지요. 이런 것이 참회불공의 묘덕입니다. 뿌린 씨앗은 시절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싹이 트니까요. 지금의 내가 힘든 만큼 과거 나로 인해 부모가 힘들었던 마음의 저울무게는 아마도 같은 눈금을 가리킬 겁니다. 그렇기에 나로 인해 고통스러웠을 부모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면 자식들의 허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과라는 것이죠. 자식들의 허물은 허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식들의 허물은 다름 아닌 자신의 공부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참회는 업을 소멸하는 기회인 동시에 효순의 인을 심어주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은 부모에게 지은 것을 참회하면 업 소멸하게 되면서 동시에 효순의 인을 심는 좋은 기회가 되지요. 항상 힘든 상황이 선업을 지을 수도 악업을 지을 수도 있는 분기점임을 자각하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겠지요.

심덕의 대원, 백행의 근본, 보리행의 으뜸이라는 효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좋은 의복, 맛나는 음식, 좋은 곳의 여행 등도 부모의 은혜를 갚는 방법이 되겠지만 부처님께서도 "부모를 불법으로 인도함이 가장 큰 효다" 하셨습니다. 인과 공부하는 우리 교도들은 물과 심의 이원진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서 진실한 효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앞서 부모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를 향한 관심과 기대를 조금 낮추고 낮춘 만큼 부모에게로 돌리면 최소한 낮춘 만큼 자녀들이 잘되는 것은, 효순의 인을 심었기에 효순의 과보를 받게 되는 이치입니다. 이는 우주자연의 진리입니다.

돌아가신 부모조상을 위해 영식천도 불공을 할 때 살아생전의 평소에 절절했던 마음을 잘 헤아려드림이 효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모조상의 영식을 천도하는데 살아있는 자녀들의 사업이 잘된다는 말씀도 또한 돌아가신 부모 조상이나 생존해 계신 부모는 자손이 바르게 잘 살기를 바라는 오직 한 마음이니 부모조상을 향한 지극한 그 마음이 서로 통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과일나무에 좋은 결실을 보려면 보이지 않는 뿌리에 충분한 영양분을 줘야 하듯이 자손을 위한다면 현재 부모향수享壽와 선망조상을 위해 추복불공을 하면 그 가정은 나날이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만능시대에 추락해 가는 부모조상 섬김을 올바르게 실천하여 선대조상에게는 훌륭한 자손이 되고 자손들에게는 모범적인 조상이 되어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두손 모아 합장 발원합니다.

봄날은 간다, 가

지현
단음사 전수

강원도 평창군 가리왕산 뒤쪽에 4촌 동생 내외가 들어와 사는 전원주택이 있다. 이 집에, 남녀 종반 간 아홉 명이 한여름 더위를 피해 모였다. 누님 셋, 그리고 4촌 형 내외, 우리 내외, 다들 60대 중후반이거나 70대 중후반이다. 세 누님은 공교롭게도 아까운 나이에 각기 부부 사별을 겪었다. 그래, 요즘 어디든 함께 잘 어울려 다닌다.

그런데, 이곳 평창에 온 첫날부터 내리 장대비가 쏟아진다. 비에 갇혀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가지 못하니, 일흔아홉 저 누님 이제 또 슬슬, 간다. 물론, 젊은(?) 두 누님도 간다. 금세, 이구동성으로 아직 참 잘도 넘어가는 자매들, 예의 흘러간 유행가 〈봄날은 간다〉를 부른다. 말하자면 누님들의 주제가다. 지난봄 포항 모임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 형제들도 모두 따라 부른다. 3절까지, 끝까지 다 부르고, 처음부터 다시 부른다. 또 부르고, 또 부른다. 이미 간 봄, 간다 간다 불러일으키니 정말, 철 지나도 실은 봄날은 간다, 가. 가도 가도 비.

내가 불쑥 말했다 봄날은 간다 3절 다음, 노인들을 위한 봄날을, 그〈제4절〉을 쓰겠다고…. 썼다.
성원에 힘입어, 썼다.

밤 깊은 시간에 창을 열고 하염없더라
오늘도 저 혼자 기운 달아
기러기 앞서 가는 만리 꿈길에
너를 만나 기뻐 웃고
너를 잃고 슬퍼 울던
등 굽은 그 적막에 봄날은 간다.

등 굽은 그 적막에 봄날은 간다, 가. 그리하여 이제 4절까지, 저 끝까지 가느라 여기 눌러앉은 뒷모습들. 그러나 봄날은 결코 제 몸 앉혀둔 채 마저 간 적 없어, 느린 곡조로 저마다 또 봄날은 간다, 가. 가느라, 지금 등이 더 굽는 중…

- 문인수, 시집 <나는 지금 이곳이 아니다> 中에서

시라는 것에 기웃거리기 시작하던 시절부터였던가.
<봄날은 간다> 만큼은 멋들어지게 불러내고 싶었다. 그래야만 인생을 제법 안다고, 인생과 사랑을 알아야만 감히 시를 쓸 수 있다고 객쩍은 멋을 부리던 시절이었나 보다.
감칠나게 불러낼수록 인생을 깊이 아는 것이라는 나름의 기준도 세워놓았으나…
터져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짠다고 노래가 나올 리 없었고, 인생은 억지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었으니 시는 될 리가 더더욱 없었다.

누구에게나 돌아가고 싶은, 봄날처럼 따스하고 아름다운 시절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봄은 늘 아련함이고, 그리움이다.
화려했거나 그렇지 않건 간에 나름의 꽃도 환하게 피워냈으리라.
인생의 봄은 속절없이 가버렸고, 흘러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잡아보고 싶은 갈망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게 한다. 되풀이하여 부를수록 마치 자신들의 청춘도 되감기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름다운 착각을 하는지도 모른다. 아니, 세월은 되돌릴 수 없지만 마음은 이미 이런저런 꽃을 피워 내던 각자의 봄으로 돌아가 꽃향기에 취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버린 인생에 대한 아쉬움과 서러움의 한을 풀어내고 또 풀어내는 것이리라.

가수의 간드러진 목소리와 애창되던 가사의 애잔함에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유독 시인이 쓴 4절에 콧등이 찡한 까닭은…
내 등도 이미 속절없이 굽어가는 중이란 걸 유감없이 느끼기 때문에~~
내 인생의 봄날을 떠올리며 미리 5절을 쓴다.

철 지난 그리움 품에 묻고 서러웠더라
해 저문 서산에 눈을 두고
석양빛 희미해진 여린 강물에
꽃잎 띄워 웃음 짓고
꽃잎 젖어 눈물 짓던
아련한 그 추억에 봄날은 간다

찬란한 꽃 향연의 역설과도 같은, 살아 숨 쉬는 존재의 모든 인생사를 토해내는 듯한 장사익의 <봄날은 간다>를 듣고 싶은…
그야말로 황홀하게 나부끼는 봄날의 뒤태가 눈물겹다.

종로서적

윤준호
필명 윤제림
카피라이터, 시인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종로서적'. 그것은 제가 속해 있는 세대에게는 단순한 책방 이름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KFC이거나 롯데리아입니다. 그것은 지하철역이거나 버스정류장 이름입니다. 그것은 302호 강의실이거나 정독도서관입니다. 그것은 비디오방이거나 멀티플렉스입니다. 그것은 PC방이거나 게임방입니다. 그것은 인터넷이거나 아마존입니다. 그것은 백과사전이거나 선생님입니다.

아니, 종로서적은 그 모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찍힌 종이로 표지를 곱게 싼 책을 들고 다니면 저절로 이 나라 지성인의 1%쯤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김홍도의 풍속화 '성당 풍경'이 그려진 그 포장지 말입니다.

생전 소설책 한 권 사 읽지 않은 녀석일수록 기를 쓰고 '종로서적에서 보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촌놈들일수록 더했습니다. 경인선 통학생이었던 제 경우만 하여도 등굣길 전철 안에서 동창생이라도 만난 날이면 차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란 듯이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야, 다섯시쯤 종로서적으로 나와."

상대가 여학생일 경우엔 좀 달랐습니다. "종로서적 '철학' 코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 "우리 늘 만나던 데 있잖아. 종로서적 앞, 거기서 만나자." 나는 마치 십년의 세월이 없었던 양 자주 만나던 친구 대하듯 말했다. "종로서적 없어졌다며?" 친구의 목소리는 기운 없이 쓸쓸했다. (중략) 종로서적이 없어졌다는 게 더는 책방이 아니라는 소리지 그 건물이 아니니까 그냥 그 앞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친구는 강한 어조로 "싫어"라고 잘라 말하는 것이었다. 왜? 그냥 보기 싫어서. 나는 더는 권하지 못하고 호텔 커피숍 이름을 말해주었다. 그리고는 친구의 마음이 옮아 붙은 것처럼 나도 한동안 쓸쓸한 감회에 젖어 또 한 친구를 생각했다.
>
> - 박완서의 산문 「두 친구」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어찌 이 할머니 작가와 그 친구만의 사연이겠습니까. 그 지점을 '종로서적 앞'이라고 부르던 모든 이들에게 섭섭한 소식일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 엘리베이터까지 달린 커다란 건물 전체가 책방이란 사실에 입을 딱 벌리고 휘둥그레진 눈으로 책방 구석구석을 훑어보느라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던 날의 기억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쓸쓸한 뉴스일 것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결국 문을 닫게 된 산골 분교를 모교로 둔 사람의 서운함이 그럴 테지요. 어린 시절 그네를 매고 놀던 느티나무가 태풍에 쓰러져 누운 것을 보는 사람의 느낌이 그럴 테지요. 해마다 복사꽃 흐드러지던 집 근처 과수원이 아파트 부지로 파헤쳐지는 것을 보는 사람의 안타까움이 그럴 테지요. 비디오 가게가 이사간 자리에 빵집이 들어서는 것을 보는 영화광의 심정이 그럴 테지요.

그것은 상실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일까요. 종로 2가 근처에서 사라진 책방이 종로서적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처음도 아닌데 왜 그리 허전한 것일까요.(이를테면 '양우당' '삼일서적' '동화서적'을 떠나보낼 때도 그러했던가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종로서적'이 우리들 가슴에 단순한 책방 이름으로만 자리잡고 있던 것이 아닌 까닭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야기를 간직한 장소로서 '젊은 영혼의 정거장'과도 같은 곳이었던 까닭일 것입니다.

책방은 일종의 '성소聖所'입니다. 거기서 얻은 '말씀'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고, 그 바뀐 인생 하나가 세상을 바꿔놓기도 하니 말입니다. 나약한 이들이 힘을 얻어 나가고 어리석은 이들이 지혜를 얻어 나가는 곳이니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로서적은 '조계사'나 '명동성당'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곳이었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20세기 브랜드에 관한 명상> 中에서

부처님께 마른 나무를 보시한 공덕

덕현
법천사 전수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급고독원 동산에 계실 때, 성중가운데 발제拔提라는 가난뱅이가 있었는데, 남의 집 정원사 노릇을 하며 매일 마른 나무 한 짐을 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 내다 팔면서 겨우 겨우 생활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성문에 들어가다가 어떤 화인化人(불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위해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화인이 가난뱅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 마른 나무를 나에게 준다면, 나는 그대에게 온갖 맛난 음식을 보시하리라."

가난뱅이는 화인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곧 마른 나무를 화인에게 넘겨주었다.

화인이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는 나무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함께 저 기원정사에 가서 그대에게 음식을 주겠노라."

가난뱅이는 화인을 따라 기원정사로 들어갔다. 이때 세존의 몸에서 광채가 나는 것이 마치 백 천의 햇빛 같음을 보고서 곧 환희심을 내어 부처님 앞에 엎드려 크게 예배하고 그 마른 나무를 부처님께 바쳤다.

세존께서는 이 마른 나무를 땅에 꽂아 심었는데, 잠깐 사이에 신통력으로 가지와 잎을 생기게 하고 꽃과 열매를 무성케 하여 마치 니구타나무처럼 둥글고 사랑스럽게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나무 밑에서 결가부좌하고 백 천 만의 대중들에게 묘법을 연설하시니 가난뱅이는 이것을 보고 더욱 환희심이 일어났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큰 서원을 세웠다.

'원컨대 이 마른 나무를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으로 미래세에 저로 하여금 정각을 이루게 하여 오늘날의 부처님처럼 중생을 널리 제도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 같이 발원하자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니, 다섯 가지 빛깔의 광명이 그 얼굴에서 나와 세 겹으로 부처님을 둘러싼 뒤에 부처님의 정수리로 들어갔다.

그때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여래께선 항상 스스로 존경하사 함부로 웃음을 나타내지 아니하셨거늘 지금 빙그레 웃으심은 무슨 까닭입니까. 원컨대 세존께

서 말씀해주소서."

"아난아, 너는 지금 저 가난뱅이가 나에게 마른 나무를 보시하는 것을 보았느냐?"

"예, 이미 보았나이다."

"저 사람은 신심과 공경심으로 나에게 마른 나무를 보시한 선근의 공덕으로 미래세에 열 세 겁이 지나도록 지옥, 축생, 아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천상과 인간세상의 즐거움을 받으며, 최후에는 벽지불을 성취하여 이구離垢라는 명호로 한량없는 중생을 널리 제도하게 되리니, 그 때문에 웃었느니라."

그때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크게 받들었다.

5월은 석가탄신일이 있는 성스러운 달이자 가정과 관련된 날이 참으로 많은 달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고,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분입니다. 모두 참으로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소중한 의미가 있는 5월입니다.

석가탄신일을 통하여 발제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항상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선근의 공덕이 크게 뿌리를 내려 싱싱한 줄기와 잎을 내고 충실한 과일을 맺게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부처님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잘 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아주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듯 부모님께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부모님께 잘 하는 것입니다.

효도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때가 되어 나이에 맞게 물 흐르듯이 생활하는 것도 작은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갈 때 학교에 가고, 취업 할 때가 되면 취업하고,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하고, 아기 낳을 때가 되면 아기를 낳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활해 나가는 것이, 크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효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는 갈수록 각박해지고 생활은 힘들어지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청춘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험난한 세상에 그래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다독여 주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배려와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답할 수 있는 작은 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자주 전화하고, 자주 얼굴 보여드리고, 바빠도 가끔은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소함 속에 담겨있는 따뜻한 마음이 진정한 효도일 것입니다. 이런 일을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마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마른 나무를 보시한 발제를 보면서 갑자기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어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좋은사람, 나쁜사람

법일
벽룡사 주교

누가 좋은 사람인가?
어느날 공자의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가 좋은 사람입니까?"

"
좋은 사람이 좋아하고
나쁜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

6가지 감옥

한 심리학자가 사람에게는 6가지 감옥이 있다고 한다.

첫째 감옥은 자기 도취의 감옥이다.
공주병, 왕자병에 걸리면 정말 못 말린다.

둘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이다.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한다.

셋째 감옥은 절망의 감옥이다.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불평하며 절망한다.

넷째 감옥은 과거 지향의 감옥이다.
옛날이 좋았다고 하면서 현재를 낭비한다.

다섯째 감옥은 선망의 감옥이다.
내 떡의 소중함은 모르고 남의 떡만 크게 본다.

여섯째 감옥은 질투의 감옥이다.
남이 잘되는 것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자꾸 헐뜯고 싶어진다.

- 좋은글 中에서

SNS세상돌아보기

대한민국의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유일한(유일형)
1895년 ~ 1971년
독립운동가
기업인
유한양행 설립

1971년 3월 한 기업의 설립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그의 유언장…
대기업을 설립하여 큰 부를 축적한 그였기에 세간에 관심은 자연스럽게 유언장을 향하였습니다.
유언은 편지지 한 장에 또박또박 큰 글씨로 적혀있었습니다.

1. 손녀인 유일링에게는 대학 졸업시까지 학자금으로 1만 불을 준다.
2. 딸 유재라에게는 유한공고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천 평을 물려준다. 그 땅을 동산으로 꾸미고, 결코 울타리를 지치 말며, 중·고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여 그 어린 학생들이 티 없이 맑은 정신에 깃든 젊은 의지를 지하에서나마 더불어 느끼게 해 달라.
3. 그동안 일해서 모은 내 소유 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한국 사회 및 교육 원조 신탁기금"에 기증한다.
4. 아내 "호미리"는 딸 "재라"가 그 노후를 잘 돌보아 주기를 바란다.
5. 아들 유일선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6. 아무에게 돈 얼마를 받을 것이 있으니, 얼마는 감해주고 나머지는 꼭 받아서 재단 기금에 보태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첫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의 설립자이며, 많은 사회공언과 재산의 환원으로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던 '유일한 박사'의 유언장입니다.

유일한 박사는 기업경영 당시, 친인척들이 함께 있으면 파벌이 형성되고, 회사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친인척들을 모두 내보내고 전문 경영인을 두어 회사를 경영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세무조사를 하셨던 분의 회고에서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았던 유일한 대기업이 유한양행이었다고 하며 매우 놀랐었다고 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정경유착, 불법탈세, 불법증여,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피눈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기득권층의 불법과 부정과 부패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유일한 박사의 생전의 말씀과 그의 정신이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리더의 조건'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 SNS상의 좋은글 中에서

독자기고

내 두 번째 이름

경문지
천안두정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양훈이가 놀려요!" "선생님... 머리가 아파요..." "선생님, 친구랑 싸워서 고민이 있는데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학원 늦었어요~ 빨리 마쳐주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는 좀 어떤가요?" ……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럼에도 가끔은 너무나도 무거운 내 두 번째 이름.
'선생님'이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나는 우리 부모님의 딸, 누군가의 친구 '문지'였는데, 난 여전히 '엄마 엄마'하는 철없는 소녀같기만 한데, 어느샌가 '선생님'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새 누구보다 빨리 책임감이라는 검을 매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

누군가는 나에게 이런 말들을 한다.

"와~ 이제 걱정없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겠네," "애들인데 가르치는 거 뭐 어렵겠어." 등등...
분명 단 한번도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가르쳐본 적 없는 사람들이리라.

교대를 다닐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아주 대단한 의사도 평생 아픈 환자를 대하고, 아주 유능한 판사도 평생 잘못을 저지른 죄인을 대한다. 하지만 교사는 희망으로 가득찬 아이를 대하지 않느냐.'
언젠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와 내 친구들은 마음 속으로 괜한 으쓱함과 함께 우리가 추구하는 일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다. 아, 물론 앞으로 짊어질 하루하루 다가올 그 무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이다.

그 무게라는 것, 그것은 질서있게 앉아 오롯이 나에게만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내는 '그들'을 맞이하던 그 순간부터 쿵!하고 다가왔다. 그들은 이렇게 사소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꽤나 큰(미안하게도 공감이 가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들에겐 늘 그 순간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고민들, 즉 자신의 어디가 아픈지, 이해하기 어려운 수학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사랑과 우정이라는 그들의 사업은 어찌되고 있는지, 본인의 가족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정말이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생각해야 하는 모든 것을 모은 고민주머니를 일제히 나에게 던져온 것이다. 하하, 가끔은 그 고민주머니 때문에 닫혀있던 내 의식의 박에 금이 가고, 살짝 열려 결국에는 빵하고 터질 때도 있다.

그 경험이 처음일 때는, 아니 지금도 내 마음에 금이 아주 깊이 그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그럴 때면 잠을 자면서까지 아이들로부터 힘들어 눈물을 펑펑 흘리는 악몽을 꾸기도 하고, 학교에 출근할 때 정말이지 5kg 짜리 모래주머니를 차고 가는 듯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기도 하고, 언젠가 이 글을 빌어 이야기하고픈 내가 좋아하는 다른 일로 아예 눈을 돌리려 할 때도 있다. 이 세상 어느 역할에 처한 누구라면 응당 겪는 마음앓이라는 것을 알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 고민주머니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선생님'이라는 박을 만나 펑! 터질 때, 자신의 주머니 안에 있던 것들이 마치 하늘에 터지는 팝콘처럼 시원히 흩뿌려짐을 보며 그들이 비로소 웃을 때, 내 마음은 살아있음을 느낀다. '역할을 했구나.' 지금껏 살면서 웬만큼 느끼지 못했던,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느낀다고나 할까.

물론 그들 고민주머니 안의 무언가들은 매일매일 종류도 모양도 무게도 다 다르다.

참으로 낯설고 고통스러웠던 첫 일 년. 그리고 2년차인 지금과 앞으로의 나날들.
이제는 그 주머니의 소리에 두려워 말고, 아파하지 말고, 부담스러워 말고, 하나씩 시원하게 맞아보는 재미를 느껴보고자 한다. 좀 더 단단한 박이 되길 바라며, 풍성한 가르침으로 가득한 박이 되길 바라며 진지하게 다짐해보는 이 순간이다.

'급한 일이 있나?' 갑자기 휴대폰이 윙윙 울린다.
"선생님, 선생님!" "저 머리 빨간색으로 염색했어요~!" "궁금하시죠?" "내일 보여드릴게요!"
멍하다. 궁..금한가...? 궁...금해 하자!

역시나 그에게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므로.
'선생님'이라는 내 이름이 들려오는 지금, 그저 이런 저런 생각은 접어두고 얼른 내일 그들을 위해 기꺼이 달려갈 준비를 해야겠다. 땅속 깊이 지지하고 있는 나무처럼 그들을 위해 그 자리, 그 곳에 서있어야겠다.

그래, 나는 '선생님'이다.

행복한 기지개

따뜻한 봄철, 알레르기 질환으로 힘든 사람들

최길순 교수

신대 복음병원 알레르기 내과 조교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봄은 따뜻함으로 다가오지만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는 유난히 힘든 계절로 다가온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여러 알레르기 질환이 새로 발생하기도 하고 겨우내 잘 조절돼 왔던 기존의 알레르기 질환이 다시 악화되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질환은 한 마디로 우리 몸의 유전적 체질에 환경적 요인이 작용해 생기는 알레르기 면역반응이다. 알레르기 질환은 전신에 다 발생할 수 있지만 특별히 봄철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은 눈, 코, 기관지 등에 집중돼 발생한다.

눈에 발생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눈이 충혈되면서 가렵고 눈물이 나며 눈부심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과 동반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알레르기 비염은 반복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코가려움증 등을 주로 나타내며 입천장이나 목 속, 귓 속에 가려운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기관지에 발생되는 천식은 기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기관지가 좁아져 가슴이 답답해지며 심한 경우 호흡이 곤란하며 숨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질환이다. 이 외에도 접촉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 될 수 있다.

봄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는 꽃가루, 황사와 같은 고농도의 미세먼지, 잦은 호흡기 감염 등이 있다. 꽃가루는 나무, 잔디, 잡초 꽃가루등 다양한 꽃가루가 존재하는데 개개인마다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꽃가루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대기 중 꽃가루 농도는 연 2회 봄철과 가을철에 절정을 이루며 그 이후 현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꽃가루가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면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을 일으키며 때로는 발열이나 관절통 등 전신 증상을 보이는 고초열hay fever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꽃가루에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일부 환자에서 밤이나 사과, 키위 등을 먹었을 때 목안이 가렵고 붓거나 입술이 붓는 증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꽃가루가 공기 중에 날려 피부에 닿을 경우 얼굴, 목, 손 등 노출 부위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알레르기 반응으로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가려운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증상은 노인이나 어린이 같이 피부가 약하거나 피부가 건조한 사람의 경우 흔히 나타나며 특히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경우 더 잘 나타날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발생해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황사도 봄철 알레르기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는 황사에 포함된 중금속 물질이나 미세먼지가 알레르기 반응을 직접 유발시키기도 하고 꽃가루와 같은 다른 알레르기 원인 물질과 함께 작용해 알레르기 반응을 더 강하게 만들어 알레르기 질환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 증상을 겪으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감기가 한달 이상 지속되거나 비염 증상과 함께 결막염이 동반된 경우,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야외 활동가 같은 특정 환경에 노출된 후 증상이 발생했거나 악화된 경우 알레르기 질환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경우 전문의의 진찰과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고 알레르기 원인 검사를 통해 원인물질을 정확히 밝혀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알레르기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격리돼 살지 않는 이상 봄철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되도록 원인물질에 과다노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기예보에 관심을 기울여서 황사가 심하거나 꽃가루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야외활동을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다.

야외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예방약제를 미리 사용하면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해 예방조치를 취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메디컬투데이> 의료건강신문 中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안경 또는
선글라스 착용하기!

외출 후
깨끗이 손씻기!

석가모니불

釋迦牟尼佛

석가불釋迦佛이라고도 한다. 석가모니란, 산스크리트의 발음을 따서 중국어로 옮긴 말인데, 그 뜻은 능인能仁·능적能寂 등으로서 불타佛陀, 즉 석존釋尊을 가리킨다. 탄생불誕生佛·사유상思惟像·고행상苦行像·출산상出山像·항마상降魔像·설법상說法像·열반상涅槃像 등 여러 종류의 형상이 있다.

석가모니불이 불교의 교조敎祖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 것이다. 다만 석가모니불의 <석가>는 무슨 뜻이며 <모니>는 무슨 말인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석가는 석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모니는 성자라는 뜻이다. 따라서 석가모니란 석가족의 성자를 말한다.

석가모니불은 원래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 남쪽 기슭의 카필라밧투의 성주인 슛도다나 왕의 태자로 태어났으며 그 성이 고타마, 이름이 싯달타였다. 이 종족種族이 사캬족(태양의 후예라는 뜻)이었다.

태자 싯달타는 29살이 되었을 때 출가하여 6년 고행 끝에 7일간의 선정禪定을 통해 크게 깨치어 위대한 부처가 되었다. 그때 나이가 35살이었다.

그래서 사캬족 출신의 성인聖人;muni(음역해서 牟尼)이라는 뜻으로 석가모니라고 하는 것이다.

급수공덕

給水功德

給 줄 - 급	功 공 - 공
水 물 - 수	德 덕 - 덕

불교佛敎에서 물을 떠서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공덕功德을 말함.
즉, 지극至極히 쉽고도 대단치 않으나 남을 위爲하여 일하는 것은 선행善行이라는 말.

옛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물처럼 귀한 것이 없었다. 흉년이 들어 밥을 못먹을지언정 물이라도 있으면 들이키며 갈증도 해소하고 배고픔을 일시 속일 수도 있었다. 옛날 고을의 원님이 칭송받는 공덕으로는 배고픈 이를 구휼하는 기사구제공덕飢死救濟功德과 개울에 다리를 놓는 월천공덕越川功德이 칭송을 받는 공덕이었지만 목마른 이에게 물을 떠 주는 급수공덕給水功德이 으뜸이었다.

작자 미상이나 서산대사西山大師, 1520~1604가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회심곡回心曲이 있다. 불교의 승려가사僧侶歌辭로 분류되는 회심곡의 일부에 공덕功德에 관한 가사歌辭가 있다.

위드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발행일 총기 46(2017)년 5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 책임 이선희
디자인 지디자인
인쇄 동림기획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서 아래의 주소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sunmac72@naver.com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종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총지화 지 정 김양숙(포레7) 송유나(포레7)
손재순(포레7) 최순기(포레7) 김주희(포레7)
손경옥 한미영 서금엽 이혜성 이인성 성화사
류경록 강정자 주건우 김성민 무명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드다르마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편집 후기

따뜻한 봄 햇살과 살랑이는 봄바람.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나고, 산은 푸르게 물들어 간다.
이 계절에 우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한다.

부처님오신날,
연등을 만들고, 서원당 마당에 연등의 불을 밝힌다.
각자의 염원을 담아 불을 환하게 밝힌다.
마치 환한 달이 뜬 것처럼 보이는 연등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 주세요.
세월호 미수습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보내주세요.
세월호의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국민의 삶을 바꿀 대통령이 나오게 해 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며,
하나같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하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는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일 것이다.

부처님의 넓고 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혼동하지 마라
지식이 옅어도 지혜는 깊을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이 깊으면
지혜를 얻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 환당 대종사 -